

### 03. 새로운 시작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 【본문 학습】

성어	浩 <sup>1</sup> 호	然 <sup>2</sup> 연	之 <sup>3</sup> 지	氣 <sup>4</sup> 기	浩 넓다 然 그러하다 之 ~하는(한) 氣 기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然: ~한 모양</li> <li>之: ~하는(~한)</li> </ul> <p>▶ 넓고 큰 기운(→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p>				
성어	自 <sup>1</sup> 자	強 <sup>2</sup> 강	不 <sup>3</sup> 불	息 <sup>4</sup> 식	自 스스로 強 힘쓰다 不 아니다 息 쉬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自(주어)+強(서술어): 스스로 힘쓰다</li> </ul> <p>▶</p>				
성어	心 <sup>1</sup> 심	機 <sup>2</sup> 기	一 <sup>3</sup> 일	轉 <sup>4</sup> 전	心 마음 機 틀 一 하나, 한번 轉 구르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心機: 마음의 틀, 마음가짐</li> <li>一轉: 한번 돌. 한 바퀴 돌. 아주 변(變)함</li> </ul> <p>▶</p>				
성어	換 <sup>1</sup> 환	骨 <sup>2</sup> 골	奪 <sup>3</sup> 탈	胎 <sup>4</sup> 태	換 바꾸다 骨 뼈 奪 빼앗다 胎 태주머니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換(서술어)+骨(목적어): 뼈를 바꾸다</li> </ul> <p>▶</p>				
성어	斷 <sup>1</sup> 단	機 <sup>2</sup> 기	之 <sup>3</sup> 지	戒 <sup>4</sup> 계	斷 끊다 機 틀 之 ~하는(한) 戒 경계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之: ~하는</li> </ul> <p>▶</p>				



성어	初 志 一 貫 초 지 일 관	初 처음 志 뜻 一 한결같이 貫 꿰뚫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 한결같이</li> </ul>	
문장	湯 之 盤 銘 曰 : 탕 지 반 명 왈	湯 끓다, 임금 盤 소반 銘 새기다 曰 말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湯: 탕왕(湯王). 중국 은 나라의 건국 시조</li> <li>盤銘: 탕왕(湯王)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대야에 새겨놓았다는 글.</li> </ul>	
문장	苟 日 新이어든 日 日 新하고 又 日 新이라. 구 일 신 일 일 신 우 일 신	苟 진실로, 만약 日 날 新 새롭다 又 또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苟: 진실로, 만약</li> <li>日: 어느 날</li> <li>日日: 나날이</li> <li>日: 날로</li> </ul>	

※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와 형편을 살피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일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貫祿 관록 · 實狀 실상 · 慣習 관습 ·	· 실제의 상태나 내용. · 어떤 일에 대한 상당한 경력으로 생긴 위엄이나 권위. ·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	---

〔나〕

有耶無耶 유야무야 · 自暴自棄 자포자기 · 龍頭蛇尾 용두사미 ·	·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 ·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처음은 왕성하나 끝은 부진한 현상.
---	--

※ 위 성어를 활용하여 아래 빈 칸을 완성하여 봅시다.

성찰 내용	향후 계획

〔다〕

肯定 긍정 · 傲慢 오만 · 經驗 경험 · 誇張 과장 · 躍進 약진 · 普遍 보편 · 啓發 계발 · 努力 노력 · 培養 배양 · 開拓 개척 · 儉素 검소 · 自愧感 자괴감 ·	·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通)함. · 힘차게 앞으로 뛰어 나아감. ·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 ·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 사치하지 않고 꾸밈없이 수수함. ·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 식물을 북돋아 기름. 인격, 역량, 사상 따위가 발전하도록 가르치고 키움. ·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감. ·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	---

※ 짧은 명언, 명구 만들어 보기



## 【꼭 알아 둬시다】

### ■ 한문의 품사와 활용

- 한문의 품사
  - 단독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품사: 개사, 어조사, 접속사, 감탄사 등
- 품사의 활용
  - 수사의 부사화: ‘初志一貫’의 ‘一’은 ‘하나’라는 수사이나 ‘한결같이’라는 부사로 쓰인다.
- 주술관계: 自(주어)+強(서술어): 스스로 힘쓰다. (예) 品貴: 品(주어)+貴(서술어): 물건이 귀함.

### ■ 換骨奪胎(환골탈태) 이야기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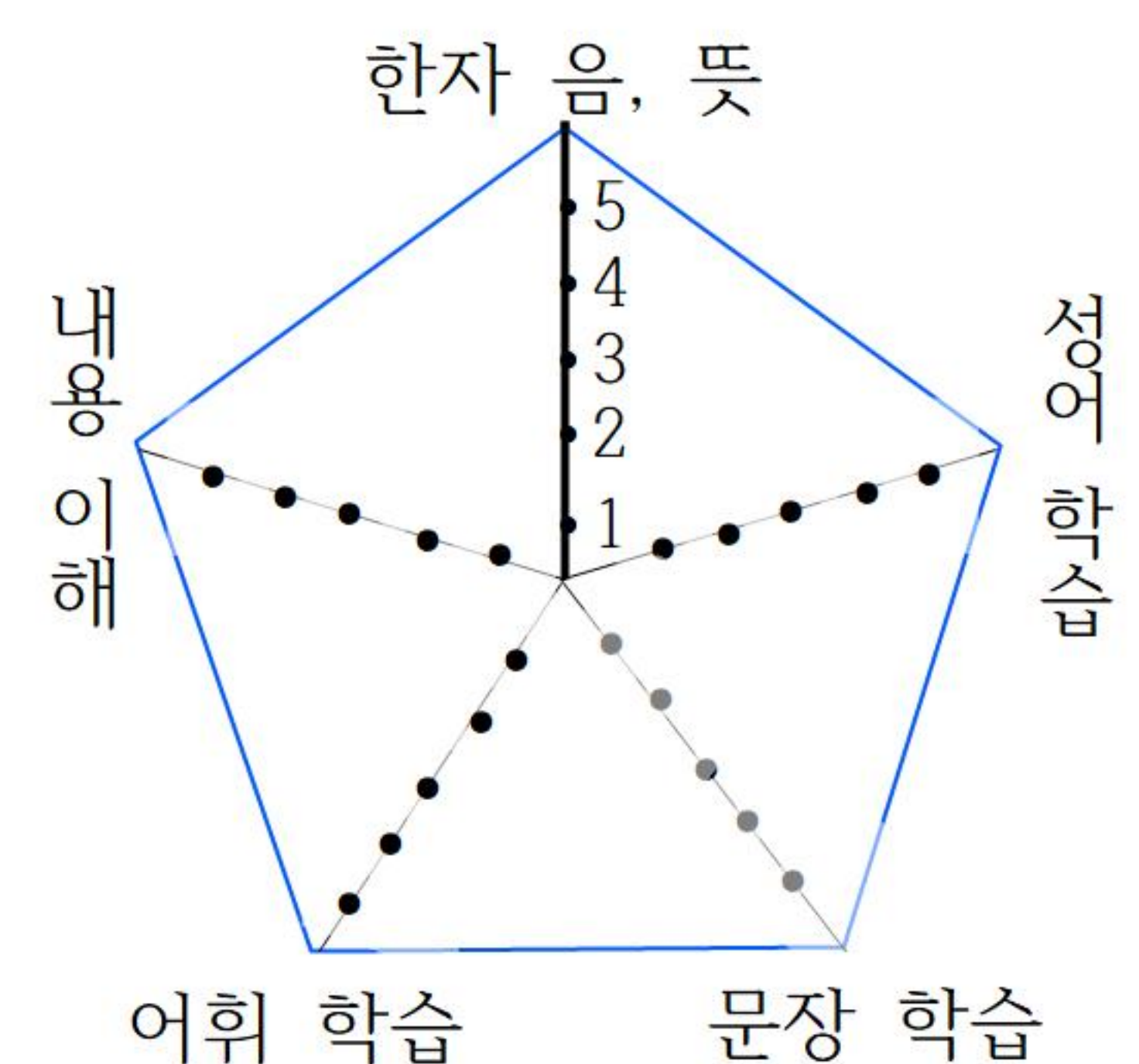
“황산곡(黃山谷:본명 庭堅)이 말하기를 시의 뜻은 무궁한데 사람의 재주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재주로 무궁한 뜻을 좇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 환골법(換骨法)이라 하고 그 뜻을 본받아 형용(形容)하는 것을 가리켜 탈태법(奪胎法)이라 한다.”

換骨奪胎(환골탈태)는 원래 선가(仙家)에서 연단법(鍊丹法)에 의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황정견이 이것을 인용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쓰게 되었다.

### ■ 盤銘(반명)

중국 은 나라의 건국 시조 탕왕(湯王)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세숫대에 새겨놓았다는 훈계의 글. 그 내용은 ‘구일신(苟日新)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으로,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이다. 탕왕이 세숫대에 훈계의 글을 새긴 이유는 자신이 세수할 때마다 이 글을 보고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04. 끈기 있는 노력

이름: ( )학년 ( )반 (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水 <sup>1</sup> 수	滴 <sup>2</sup> 적	穿 <sup>4</sup> 천	石 <sup>3</sup> 석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水滴: 물방울</li> <li>▶ 물방울이 돌을 뚫음.(→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음.)</li> </ul>				水 물 滴 물방울 穿 뚫다 石 돌
성어	發 <sup>발</sup>	憤 <sup>분</sup>	忘 <sup>망</sup>	食 <sup>식</su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發: 표출하다, 드러내다</li> <li>▶</li> </ul>				發 피다 憤 성내다 忘 잊다 食 먹다
성어	愚 <sup>우</sup>	公 <sup>공</sup>	移 <sup>이</sup>	山 <sup>산</su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愚公: 사람이름</li> <li>▶</li> </ul>				愚 어리석다 公 공 移 옮기다 山 산
성어	克 <sup>극</sup>	己 <sup>기</sup>	復 <sup>복</sup>	禮 <sup>례</su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復: (복) 돌아가다, (부) 다시</li> <li>▶</li> </ul>				克 이기다 己 몸, 자기 復 돌아가다, 다시 禮 예도



성어	百折不屈 백절불굴	百 일백 折 꺾다 不 아니다 屈 굽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百: 일백 → 수없이 많이</li> <li>不: ~하지 않다.</li> </ul>	
성어	背水之陣 배수지진	背 등 水 물 之 ~하는(한) 陣 진 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之: ~한</li> </ul>	
문장	有志者事竟成也. 유지자사경성야	有 있다 志 뜻 者 놈, 사람 事 일 竟 마침내 成 이루다 也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者: ~자(사람)</li> <li>竟: 마침내</li> </ul>	

※ 끈기 있는 노력을 보여 준 선인들의 삶을 본받아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내면의 힘을 기른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祕境 비경 • 雙眼鏡 쌍안경 • 滴水 적수 • 摘發 적발 • 適任 적임 •	• 떨어지는 물방울 • 어떤 임무나 일에 알맞음. 또는 그 임무. • 신비스러운 경지,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 • 두 개의 망원경 광축을 나란히 붙여, 두 눈으로 동시에 먼 거리의 물체를 확대하여 쉽게 바라볼 수 있게 한 광학 기계.
---	---

〔나〕

特殊 특수 • 努力 노력 • 啓發 계발 • 經緯 경위 • 經驗 경험 • 忌避 기피 •	• 특별히 다름. •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 직물(織物)의 날과 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	---

※ 10년 후의 희망을 써 봅시다.

--

〔다〕

保護 보호 • 業務 업무 • 擔當 담당 • 一般的 일반적 • 特許權 특허권 • 被害 피해 • 技術 기술 • 侵害 침해 • 訴訟 소송 • 辯論 변론 • 解決 해결 • 誘導 유도 • 妥當性 타당성 • 檢討 검토 •	• 어떤 일을 맡음. •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 •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또는 그런 것. •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 •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 • 실용신안 • 의장에 관하여 독점적 •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 침범하여 해를 끼침. •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 •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 •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 •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	---



## 【꼭 알아 둬시다】

### ■ 한자의 쓰임

- 復 (복) 돌아가다: 回復(회복), 復歸(복귀), 反復(반복)
- 復 (부) 다시: 復活(부활), 復興(부흥)

### ■ 愚公移山(우공이산)의 유래

북산에 우공이라는 아흔 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칠백 리, 만 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 생활하는 데 무척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공과 아들, 손자는 지게에 흙을 지고 발해 바다에 갔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당신인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하고 비웃자,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요.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요.”라고 하였다. 두 산을 지키던 산신이 이 말을 듣고는 큰일 났다고 여겨 즉시 상제에게 달려가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는 두 산을 각각 멀리 삭땅 동쪽과 옹 땅 남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 ■ 背水陣(배수진)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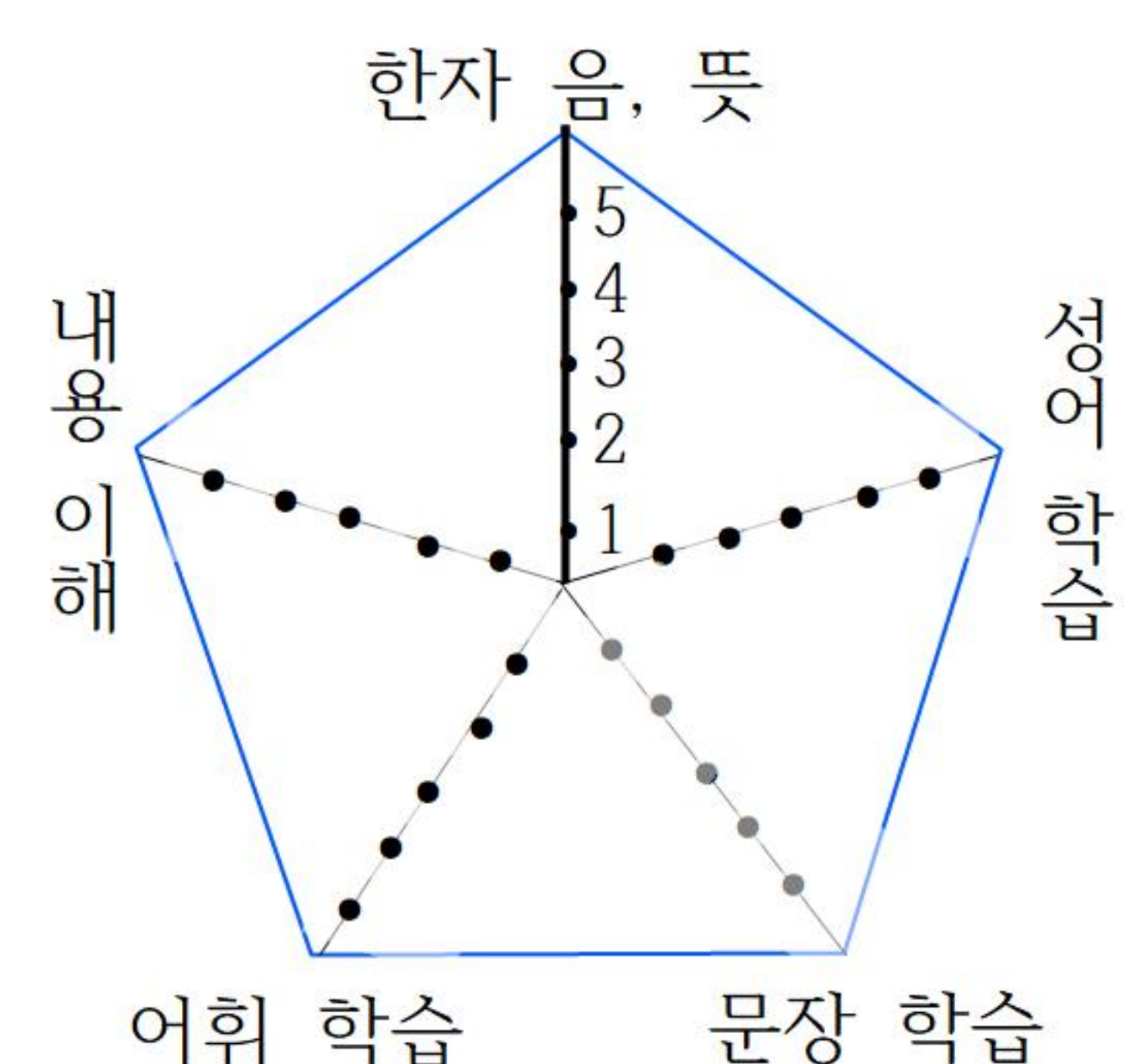
한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조나라는 군사 20만 명을 동원해서 한나라가 들어올 길목에 방어선을 만들었다. 조나라가 성 근처에 방어선을 만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신은 계획을 세웠다.

“병사 2,000명은 성 근처에 매복하고, 나머지는 성 입구까지 갔다가 도망가는 척한다. 그러면 적군은 도망가는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그때 매복한 우리 병사들이 조나라의 성을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라.”

드디어 조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 시작되었어. 한신은 퇴진하면서 병사 1만여 명에게 먼저 가서 강을 등지고 진을 치라고 했다. 후퇴하는 한나라 군사를 보면서 조나라 병사들은 더 세게 밀어붙였어.

이 틈에 성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한나라 군사는 조나라의 성을 차지하고 깃발을 꽂았다. 강가에 가 있던 한나라 병사들은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강에 빠져 죽으니 열심히 싸웠고, 한나라 군사에게 밀려 뒤늦게 성으로 돌아간 조나라 군사는 그제야 성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05. 성찰하는 자세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登 <sup>2</sup> 등	高 <sup>1</sup> 고	自 <sup>4</sup> 자	卑 <sup>3</sup> 비	登 오르다 高 높다 自 ~로부터 卑 낮다.
풀이	• 登(서술어)+高(보어): 높은 곳에 오르다.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함. (→모든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함.)				
성어	仁	者	無	敵	仁 어질다 者 놈, 사람 無 없다 敵 대적하다. 적
풀이	• 仁(수식어)+者(피수식어): 어진 자(사람) ▶				
성어	易	地	思	之	易 바꾸다 地 처지, 입장 思 생각하다 之 그것(대명사)
풀이	• 易: (역)바꾸다, (이)쉽다      • 之: 그것 ▶				
성어	刻	舟	求	劍	刻 새기다 舟 배 求 구하다 劍 칼
풀이	• 求: 구하다, 필요한 것을    찾다 ▶				
성어	不	恥	下	問	不 아니다 恥 부끄러워하다 下 아래 問 묻다
풀이	• 下問: 아랫사람에게 묻다 ▶				



성어	率 先 垂 範 솔 선 수 범	率 앞장서다, 비율 先 먼저 垂 드리우다 範 모범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率: (솔)앞장서다, (률)비율</li> <li>垂範: 모범을 보임</li> </ul>	
문장	自 謀 不 誠이면 則 欺 心 而 棄 己 이요, 자 모 불 성 즉 기 심 이 기 기	自 스스로 謀 꾀하다 不 아니다 誠 정성 則 곧, ~하면 欺 속이다 心 마음 而 말 잇다 棄 버리다 己 자기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自: 스스로</li> <li>不: ~아니다</li> <li>則: ~하면</li> <li>而: ~하고, ~이요</li> </ul>	
문장	與 人 不 誠이면 則 喪 德 而 增 怨 이라. 여 인 불 성 즉 상 덕 이 증 원	與 더불어 人 사람 不 아니다 誠 정성 則 곧, ~하면 喪 잃다 德 덕 而 말 잇다 增 더하다 怨 원망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與: 더불어, <u>함께하다</u></li> <li>人: 다른 사람</li> <li>則: ~하면</li> <li>而: ~하고, ~이요</li> </ul>	

※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아를 성찰하고 매진했던 선인들의 삶을 통해, 삶의 방법과 자세를 배우도록 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貿易 무역 • 交易 교역 • 簡易 간이 • 容易 용이 • 輕率 경솔 • 統率 통솔 • 換率 환율 • 倍率 배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과 지방 사이에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li><li>• 간단하고 편리함. 물건의 내용, 형식이나 시설 따위를 줄이거나 간편하게 하여 이용하기 쉽게 한 상태를 이른다.</li><li>•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서로 바꿈.</li><li>• 외국환 시세.</li><li>• 무리를 거느려 다스림.</li><li>•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쉬움.</li><li>•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li><li>• 어떤 수(數)가 기준이 되는 수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li></ul>
--	--	---

〔나〕

姑息之計 고식지계 • 口蜜腹劍 구밀복검 • 附和雷同 부화뇌동 • 唇亡齒寒 순망치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li><li>•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li><li>•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li><li>•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li></ul>
--	--	--

〔다〕

作成 작성 • 段階 단계 • 事例 사례 • 未來 미래 • 狀況 상황 • 目標 목표 • 設定 설정 • 成語 성어 • 選擇 선택 • 實踐 실천 • 詳細化 상세화 • 配慮 배려 • 讓步 양보 • 和睦 화목 • 健康 건강 • 想像 상상 • 期待 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앞으로 올 때.</li><li>•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li><li>•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li><li>•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li><li>•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li><li>• 옛사람들이 만든 말.</li><li>• 새로 만들어 정해 둠.</li><li>•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li><li>•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li><li>• 낱낱이 자세하게 바꿈.</li><li>•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li><li>•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씬.</li><li>•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li><li>•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li><li>•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li><li>•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li><li>•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봄.</li></ul>
---	--	--

※ 본문의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 상황을 작성해 봅시다.

目標 設定	
成語 選擇	
實踐 詳細化	
像想과 期待	



## 【꼭 알아 둬시다】

### ■ 접속사와 단어의 짜임

- 접속사: 단어와 단어, 어구(語句)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 而: 그리고, 그러나
- 술보관계: 서술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登(서술어)+高(보어): 높은 곳에 오르다.
- 수식관계: 수식어와 피수식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仁(수식어)+者(피수식어): 어진 자(사람)

### ■ 仁者無敵(인자무적)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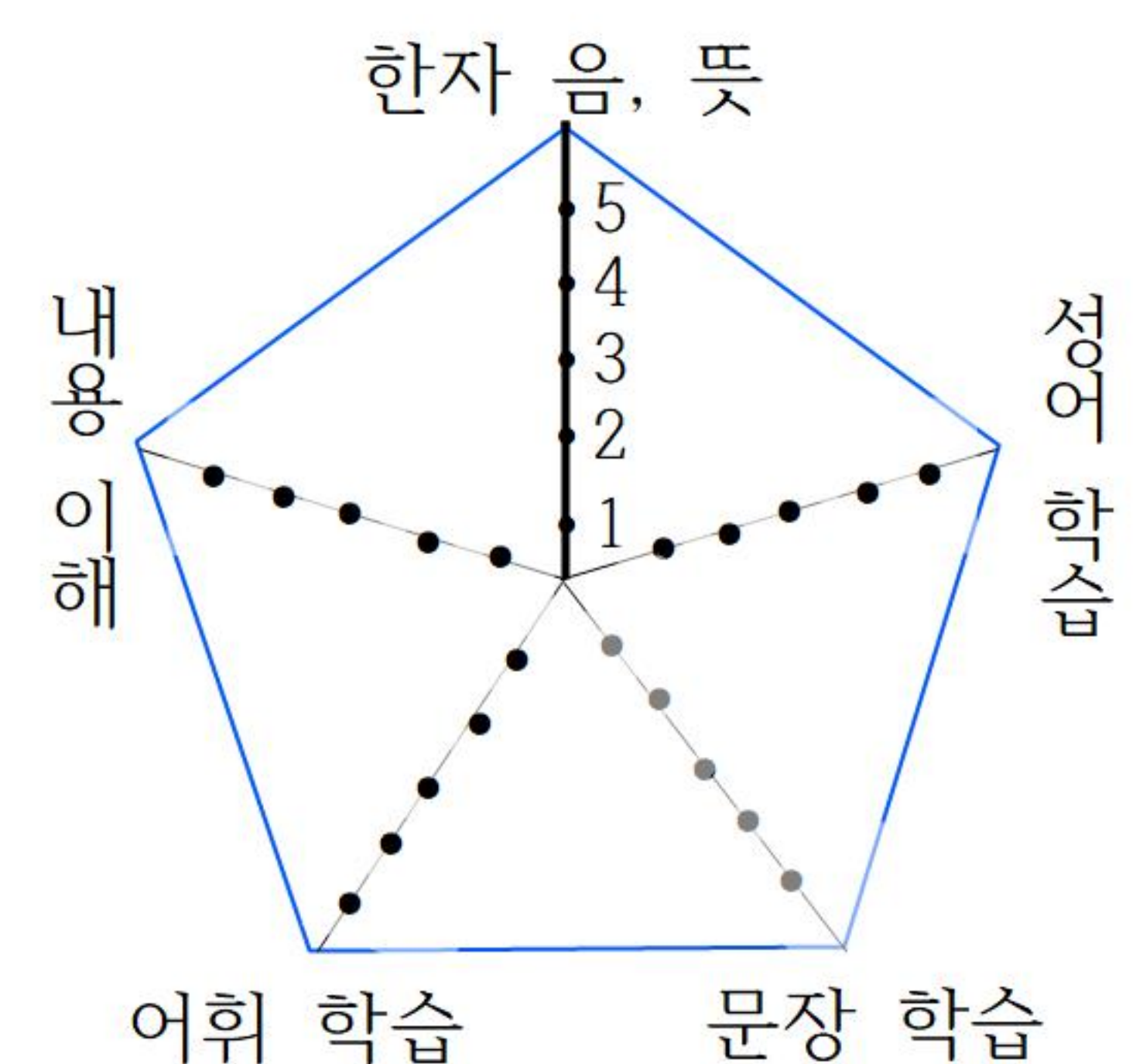
양 혜왕이 맹자에게 전쟁에서 진 치욕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지를 묻자, 맹자는 인자한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나라, 초나라)저들은 백성들이 일할 시기를 빼앗아 받을 갈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는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형제와 처자는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 왕께서 가서 정벌한다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르기를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仁者無敵)’고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어진 정치를 베풀면서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는 군주에게는 자연히 백성들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반대하는 세력이 없게 되고, 비록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인심이 떠나지 않아 총칼로도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곧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이다.

### ■ 刻舟求劍(각주구검)의 유래

중국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양쯔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 뱃멀미가 난 젊은이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긴 칼이 자꾸 흔들려서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긴 칼을 풀어 옆에 내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배가 큰 파도와 부딪혀 심하게 흔들려 긴 칼이 그만 강물에 떨어져 버리자 젊은이는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자기가 기대섰던 뱃전에 표시를 해 두었다. 그리고 배가 나루터에 닿자마자 젊은이는 뱃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까 그 강물은 벌써 지나왔는데 그 아래에 칼이 있을 턱이 있나?”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이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06. 실천하는 습관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居 <sup>2</sup> 거	安 <sup>1</sup> 안	思 <sup>4</sup> 사	危 <sup>3</sup> 위	居 살다 安 편안하다 思 생각하다 危 위태롭다
풀이	• 安: 편안함                      • 危: 위태로움 ▶ 편안함에 있어도 위태로움을 생각함. (→ 편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함.)				
성어	有 <sup>유</sup>	備 <sup>비</sup>	無 <sup>무</sup>	患 <sup>환</sup>	有 있다 備 갖추다 無 없다 患 근심
풀이	• 有(서술어)+備(목적어): 준비가 있음 • 有備, 無患: 술목관계 ▶				
성어	拔 <sup>발</sup>	本 <sup>본</sup>	塞 <sup>색</sup>	源 <sup>원</sup>	拔 뽑다 本 뿌리 塞 막다 源 변방 源 근원
풀이	• 本: 뿌리, 근본    • 塞: (색) 막다, (새) 변방    • 拔(서술어)+本(목적어) ▶				
성어	徹 <sup>철</sup>	頭 <sup>두</sup>	徹 <sup>철</sup>	尾 <sup>미</sup>	徹 통하다 꿰뚫다 頭 머리 尾 꼬리
풀이	• 徹: 통하다, 꿰뚫다    • 頭: 머리, 처음    • 尾: 꼬리, 끝 ▶				
성어	覆 <sup>복</sup>	車 <sup>거</sup>	之 <sup>지</sup>	戒 <sup>계</sup>	覆 뒤집히다 車 수레 之 ~하는(한) 戒 경계하다
풀이	• 覆: (복) 뒤집히다, (부) 덮다 ▶				



성어	務 實 力 行 무 실 역 행	務 힘쓰다 實 열매 力 힘 行 행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務實: 진실, 사실에 힘쓰</li> </ul>	
문장	必先事以防危 하고 不臨危而求幸 하라. 필 선 사 이 방 위 불 임 위 이 구 행	必 반드시 先 먼저 事 일 以 써 防 막다 危 위태롭다 不 아니다 臨 임하다 而 말 있다 求 구하다 幸 다행, 요행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先事: 일에 앞서다</li> <li>不: ~하지 마라</li> <li>幸: 다행, <u>요행</u></li> </ul>	

※ 매사에 실천을 중시했던 선인들의 삶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思惟 사유 •	• 알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함.
戀慕 연모 •	•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怪異 괴이 •	• 이성을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
恐龍 공룡 •	• 몹시 부끄러워서 개탄함.
懇切 간절 •	• 정성이나 마음 씬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함.
慙慨 참개 •	•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걸쳐 번성하였던 거대한 파충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나〕

警察 경찰 •	• 범죄를 저지른 사람.
違法 위법 •	• 경계하여 살핌. 경찰관
犯罪者 범죄자 •	•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김.
暴力 폭력 •	•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保護 보호 •	•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
消防官 소방관 •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火災 화재 •	•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豫防 예방 •	• 강압적인 힘으로 억눌러 진정시킴.
鎮壓 진압 •	•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함. 또는 급한 정황에 대처함.
應急 응급 •	•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救助 구조 •	•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活動 활동 •	• 몸을 움직여 행동함.
公務員 공무원 •	•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公職 공직 •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紀綱 기강 •	•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
確立 확립 •	•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섬. 또는 그렇게 함.
個人 개인 •	•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相互 상호 •	•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
信賴 신뢰 •	•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協力 협력 •	• 굳게 믿고 의지함.

※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 단어를 활용하여 써봅시다.

〔다〕

心肺 심폐 •	• 심장과 폐를 아울러 이르는 말.
蘇生術 소생술 •	•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술
心臟 심장 •	• 주기적인 수축에 의하여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순환 계통의 중심적인 근육 기관.
呼吸 호흡 •	• 숨을 쉴. 또는 그 숨.
確認 확인 •	•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人工呼吸 인공호흡 •	• 호흡이 정지된 사람이나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폐에 공기를 불어 넣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 처치.



## 【꼭 알아 둬시다】

### ■ 단어의 짜임- 술목 관계

- 술목관계: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有(서술어)+備(목적어): 준비가 있음      - 拔(서술어)+本(목적어): 뿌리를 뽑음

### ■ 拔本塞源(발본색원)의 유래

명(明)나라의 왕양명(王陽明)은 그의 저서 《전습록(傳習錄)》에서 발본색원론(拔本塞源論)을 이야기하였다. 왕양명은 '발본색원론이 천하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성인을 흉내 내는 무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져 사람들이 금수나 오랑캐같이 되어 성인의 학문을 이루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발본색원의 취지는 한 마디로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들은 그 욕심을 버리라는 것으로, 사사로운 탐욕은 그 근원부터 없애고 근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발본색원은 부정부패 척결, 범죄 조직 소탕 등과 같은 주로 사회의 암적인 면을 뿌리째 뽑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인용된다.

### ■ 務實力行(무실역행)과 안창호(安昌浩)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성실(誠實)을 천명하여 역행(力行)에까지 실현하는 것이 위학(爲學)의 근본이며 사람된 도리라고 생각하여 왔다. 성실 본위의 무실역행 사상은 안창호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었다.

안창호는 스스로 행함에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성(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표리부동(表裏不同)과 모략 중상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스스로도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1909년에 조직된 청년학우회의 4대 정신에서도 나타났는데,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안창호는 이 4대 정신 이외도 ‘자강·충실·근면’의 셋을 더해서 7대 정신을 내세웠는데, <청년학우회가 靑年學友會歌>를 지은 최남선(崔南善)은 가사에서 “무실역행 등불 밝고 깃발 날리는 곳에, 우리들의 나갈 길이 솟돌 같도다.”라고 하여, 그 정신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안창호는 다시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설한 흥사단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계속 전개하여, 단가에 ‘무실역행 깃발 밑에’, ‘무실역행 정신으로’ 넘람하게 모여든다고 하였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